

‘조선 4대 명필’ 서예가 원교 이광시를 만난다



서예 수집가 고광석씨가 소장한 '원교 초서 병풍'.

은암미술관 22일 ~ 8월10일

원교 이광사 서예 특별전

서첩·병풍·편액 등 60여점 선보여

지리산 인근 천은사(泉隱寺)는 원래 이름이 갈로사(甘露寺)였다. 조선 숙종 때 증건하면서 생가에 있던 구렁이를 죽였는데 샘이 말라버렸다. 샘이 숨었다는 뜻으로 천은사로 개명했는데 그 뒤로 원인 모를 화재가 자주 일어났다. 소식을 들은 명필가 원교(元峯) 이광사(1705~1777)는 물이 흐르는 듯한 수체(水體)로 '지리산 천은사'라고 일주문을 써줬다. 이때부터 화재가 멈췄고 지금도 고요한 새벽에 귀를 기울이면 현판에서 물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전설적인 서예가 이광사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은암미술관이 22일부터 8월10일까지 '원교 이광사 서예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30년간 동국전체 작품 1000여점을 수집한 장평 출신 고승석씨 협조로 이뤄졌다. 시문과 서첩, 병풍, 편액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60여점을 선보인다. 다 합치면 수억원에 달하는 가치로 알려졌다.

이광사는 안평대군(1418~1453), 한석봉(1543~1605), 추사 김정희(1786~1856)와 함께 조선 4대 명필로 꼽힌다. 특히 성호 이익의 형인 옥동 이서(1662~1723)로부터 시작돼 해남 출신 공재 윤두서(1669~1715)를 거쳐 호남에 뿌리를 내린 동국전체(東國眞體) 완성자로 유명하다. 동국전체는 중국 서체를 모방하지 않고 자유분방한 해학과 여유가 담긴 우리나라 전통 서법(書法)이다.

추사에 가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교 작품은 호남 서예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부친 이진유가 영조 31년(1755) 나주 괴서사건(역모사건)으로 처벌 당할 때 완도 신지도로 유배왔고 이후 그곳에서 일생을 마칠 때까지 수많은 작품과 서적을 남겼다.

전시에서는 다양한 원교체를 만날 수 있다. 반듯반듯한 글씨가 담긴 해서첩을 비롯해 부드러운 붓놀림을 볼 수



조선시대 신한평이 그린 원교 이광사 초상. 신한평은 화원 출신이자 해원 신윤복의 아버지다.

있는 행서 6폭 병풍 등이 출품됐다.

원교 솜씨는 초서에서 절정을 이룬다. 동국전체가 표방하는 자유로운 서법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형식과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사를 초월하려는 의지가 느껴진다. 초서천자문, 초서병풍, 초서첩 등 다양한 형식이 전시된다.

당시 원교 글씨는 서예가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며 대중화를 이루는 밑바탕이 됐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장암 이삼만, 설주 송운회, 호암 박문회, 송곡 안규동 등이 맥을 이었다. 추사 김정희도 제주 유배에서 돌아올 때 원교의 무덤을 찾아가 잔을 바치고 묘비명을 써주었다고 한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서예계가 동국전체 서맥을 잇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장자 고승석씨는 "원교 선생은 평생 붓을 잡으며 18~19세기 호남 서예 발전에 지대한 발전을 미치신 분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원교 작품을 비롯해 동국전체를 선보이는 서예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예지 지원사업 폐지 정책 철회 촉구

문학계, 출판은 공공재라는 인식 가져야

문학계가 정부의 문예지 지원사업 폐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19일 문예지 '문학의 오늘', '시작', '한국산문' 편집위원회가 '문예지 지원제도의 현황과 제언'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의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사업' 폐지 조치를 비판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시작' 주간 발행인 송남대 교수는 "우수문예지 지원 사업의 폐지는 문단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매우 크다"며 "정부의 지원금이 폐지된 이후 '유심' 등 일부 문예지들의 폐간이 줄을 잇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교수는 "문예지의 활성화 없이 문학의 발전, 문화콘텐츠의 발전, 인류의 발전은 모두 불가능하다. 모든 예술의 토대가 되는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사업'이 부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시인인 도중

환 의원은 "작년에 문화예술위원회는 우수문예지 지원 사업과 아코코문학 창작기금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작가들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적잖은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산문' 고문인 임현영 평론가는 "모든 예술의 기본인 문학이 홀대받는 상황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에서 문예지를 10년 넘게 발행해온 '문학들' 송광룡 대표는 "정부의 문예지 지원사업 폐지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문예지를 발간해온 지역 문학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출판은 공공공재라는 인식과 아울러 문예지 지원제도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부터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작가에게 창작지원금을 주는 아코코창작기금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리톤 박성훈, 스팩시오 무지까 국제성악콩쿠르 입상

지역 출신으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동중인 바리톤 박성훈(31·사진) 씨가 지난 19일 이탈리아 오르비에토에서 열린 제21회 스팩시오 무지까(S-pazio musica)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입상했다.

박씨는 이번 수상으로 오는 8월 공연되는 오페라 '라보엠'의 소남 역으로 출연한다.

스팩시오 무지까 콩쿠르는 매년 오페라 배역을 뽑는 콩쿠르로 올해는 '라보엠'을 공모했다. 총 107명이 경연에 참여, 박씨 등 3명이 입상했다.

한양대 음악대학 성악과를 거쳐 동대학원을 수료한 박씨는 임해철, 이원



준씨를 사사했으며 피렌체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피렌체 Maggio Fiorentino 극장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의 피카로 역으로 출연했으며 피렌체 베르디 극장 '카르미나 부라나'에 솔리스트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씨는 오는 10월 광주시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리는 '라보엠'에도 소남 역으로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6일 광주국제영화제 문제 해결 위한 공청회

파행을 겪고 있는 광주국제영화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광주국제영화제 문제 해결과 지역 영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 모란 테이블(이하 시민 모란 테이블)은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광주국제영화제 운영 현황과 문제점 ▲지역에서 국제영화제의 필요성과 방향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정우영 다큐멘터리 감독, 김해준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

국장, 윤수안 필름에이지 대표 등이 발제한다.

광주독립영화협회 조재형 대표는 "시민 대다수가 광주국제영화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두세 차례 공청회를 더 열어 장기적인 대책과 지역영화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10-6688-68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11회 지리산문학상 대상에 박지용 시인 선정

시산맥, '서큐버스' 외 4편

최치원 신인문학상에 최지원

제11회 지리산문학상에 박지용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서큐버스' 외 4편.

계간 '시산맥'과 지리산문학회가 주관하는 지리산문학상은 지난 한 해 발표된

기성 시인들의 작품 및 시집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맡은 안도현 시인과 심사위원들은 이번 수상작에 대해 "말과 생각이 오종종 잘 모여서 마음을 움직이는 시편"이라고 평했다.

올해 수상자인 박지용 시인은 2004년 '시와 사상', 2005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박지용 시인



최치원 시인

등단했으며 '너의 반은 꽃이다', '구름과 집 사이를 걸었다' 등의 작품집을 발간했

다.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을 받았으며 2014년 아코코문학창작기금에 선정됐다.

한편 최치원 신인문학상에는 '붉은 수화' 외 4편을 응모한 최지원 시인이 선정됐다.

지리산문학상과 최치원 신인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1일 함양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지리산문학제에서 열린다. 문의 010-8894-872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연가공금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